스리랑카 국민 위한 '필수 의약품' 모연 운동 전개

경제난 속 약품 부족…사상자 발생

마하위하라 사원, 기금 모연 나서
국적기 배송…불교종단 직접 배포
"정치 떠나 인도적 지원" 참여 호소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국가 부도 상황에 처한 스리랑카에 최악의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 부족으로 수술이나 치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사상자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재한 스리랑카인들의 안식처 아산 마하위하라 사원이 스리랑카에 의약품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모연에 나섰다.

살가무웨 담마끼띠 테로 스리랑카 지정 한국불교 교류 총괄책임자(아산 마하위하라 사원 주지)는 6월 2일 호소문을 내고 한국불자들에게 간절한 도움을 요청했다. 호소문에 따르면 현재 스리랑카에서는 식료품은 물론 생필품, 가스·기름 등 연료, 의약품 등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생필품 가격이 올랐고 특히 식품 분야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45% 넘게 올라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 의약품 부재가 스리랑카 국민들의 생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노령·기저질환자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필수적인 의약품은 물론, 갑작스러운 사고와 병고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일체의 의약품까지도 구할 수 없는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 대사관

EMBASSY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31.05.2022

Ven.T Dhammakitti,
Chief Incumbent of Korea-Sri Lanka Mahaviharaya
Republic of Korea

Donation of Medical Supplies/Pharmaceutical Items to Sri Lanka

Sri Lanka and South Korea shares a historical relationship based on the common values of the Buddhism and Buddhist culture, for centuries. It is our firm belief that the friendship and cooperation of Sri Lanka with the Buddhist community in the Republic of Korea, based on the common linkages of the Buddhism will instigate new avenues to bolster the existing amicable relations between our two countries.

At present, the friendly people of Sri Lanka is facing a challenging time due to the shortage of essential medicines and pharmaceutical items. In this connection, at the onset, I wish to extend my profound gratitude, on behalf of the the people of Sri Lanka, and my own behalf, for your interest to help and assist Sri Lanka, in fulfilling the requirement of essential medical /pharmaceutical items, at this critical and challenging moment of my country.

Accordingly, as requested by you, I herewith forward the updated list of medical supplies, received from the State Ministry of Production, Supply and Regulation of Pharmaceuticals of Sri Lanka, for your kind perusal and to raise support and assistance from the Buddhist Society of Korea, as appropriate (Annex 01).

The donations will be directly received by the Ministry of Health, Sri Lanka. The donors are advised to provide this Embassy with a list of medical/pharmaceutical items, as per the Annex, enabling this Embassy to get a prior approval from Colombo.

In addition, most importantly, I herewith append the details of the bank account for those who are interested in making financial donations in foreign currency to purchase of medical supplies.

Bank - Bank of Ceylon, Metropolitan
Account No - 0088877498
Account Name - Ministry of Health Special Foreign Currency Account
SWIFT Code - BCEYLKLX
Bank Code - 7010
Branch Code - 618

Your effort to help the people of Sri Lanka is greatly appreciated.

Sachini Dias (Ms)
Charge d' Affaires (a.i)

35, Dongho-ro 19-gil Jung-gu, Seoul 04590, Republic of Korea
서울시 중구 동호로19길 39 (우) 04590
Tel : +82-2-719-2966/7
+82-2-796-2968
Fax : +82-2-737-9577
E-mail : mission@slembkr.org
Web : www.slembassykorea.com

상황이다.

이에 마하위하라 사원은 본국 정치상황을 떠나, 인도적 차원에서 고통받는 스리랑카 국민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스리랑카 국민들을 위한 필수의약품 지원을 위한 모연'을 시작했다. 모연금은 전액 스리랑카 국민들을 위한 의약품 구입에 사용될 예정이며 구입은 병원불자연합회(회장 류재환)를 비롯한 한국 불자의료인들의 도움을 받을 계획이다. 마련된 필수의약품은 주한 스리랑카대사관을 통해 국적기를 활용, 스리랑카로 배송될 예정이다. 본국 내에서의 의약품 배포는 스리랑카 불교종단이 직간접적으로 담당한다.

현재 마하위하라 사원은 주한스리랑카대사관을 통해 '의약품 생산·공급 및 규제부(from the State Ministry of Production, Supply and Regulation of Pharmaceuticals of Sri Lanka)'로부터 필수의약품 목록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상태다. 목록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의약품(vital pharmaceuticals) 11개와 중요 의약품(essntial pharmaceuticals) 405개, 시급한 외과수술 관련 의약품(urgent surgical urgent) 47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담마끼띠 스님은 또 "스리랑카 내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오로지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필수의약품을 통한 인도적 지원을 이루고자 한다"면서 "고통받고 있는 불교국가 스리랑카 국민들을 위해 한국불자들의 관심과 정성을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948년 독립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스리랑카는 국제통화기금과 국제금융지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스리랑카의 5월 물가 상승률이 39.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전국 곳곳에서는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으며 때때로 격렬한 시위가 발생,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기업은행 641-042679-04-016 (사)마하위하라. 010-6402-1333

한마음과학원 5월 28일 공생실천과정 36기 회향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느끼고, 거기에 맞춰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고, 근본인 주인공을 알게 하는 생활수행 실천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2002년 10월 1기 강의를 시작으로 20년 넘게 발전을 거듭하며 마음공부의 길을 안내하고 있는 한마음과학원의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은 5월 28일 한마음과학원에서 36기 교육과정을 회향했다.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공부 재료로 삼아, 자신의 근본(主人空)을 탐구하며 자신의 내면을 지켜보고, 믿고 맡기며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 마음의 힘을 키워 나가는 생활 속 참선수행 프로그램이다.

한마음과학원 담당법사 혜찬 스님은 "일상생활에서 다가오는 것들을 마음공부의 재료로 삼아 긍정적으로 재입력하는 연습을 통해 나와 내 주변을 바꾸어 갈수 있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37기 교육은 5월 29일부터 신청가능하며, 교육과정은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 선착순 50명 참여가능하다. (031)470-3198 노덕현 기자

세원사, 상월청년회에 장학금 수여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5월 31일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상월청년회원 중 동국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10명에게 장학증서가 수여됐다.

동국대 건학위 5월 31일
미래불자육성장학 전달식

상월결사 정신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상월청년회원들에게 장학금이 수여됐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5월 31일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동국대 재학 상월청년회 회원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장학금은 보령 세원사(주지 정운)가 후원했으며, 상월청년회를 이끌고 있는 서울 수국사(주지 호산)를 통해 전해졌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원래는 지역 사찰과 같은 지역의 재학생들을 이어주는 장인데 상월청년회의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이 지원돼야 한다는 호산 스님의 건의가 있었다"면서 "여러분의 활동에 기대가 크다. 행동 하나하나가 불교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활동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은 "상월청년회는 상월결사 회주이자 건학위원회 총재이신 자승 스님의 인연으로 만들어졌다"며 "감사편지에 담긴 대로 장학금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신행활동도 활발하게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청년 불교가 활성화돼야 출가자가 많이 생기고, 불교도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게 상월청년회는 타의 모범이 되는 단체"라면서 "상월청년회원 재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수여식 직후 상월청년회원들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서윤(광고홍보학과 3학년) 씨는 "주워진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상월청년회 활동 및 청년 포교에 힘쓰는 데 사용하겠다. 또한 제 꿈이었던 광고 기획자가 되기 위한 공부 관련 교재 구입의 장학금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 이끌 청년불자 120명 수계 받아

청년대학생전법단 5월 29일
합동수계법회 봉행

전계사로 포교원장 범해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등 격려
3년만의 대면행사, 120명 운집
8월 영부디스트캠프도 예정돼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선업 스님이 조석주 대불련 회장에게 연비를 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청년대학생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제자로 거듭났다. 조계종 청년대학생전법단(단장 무각, 서울 공생선원장)은 5월 29일 서울 봉은사에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와 함께 '2022 청년대학생 불자 합동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법회에는 전계사로 포교원장 범해 스님이 나섰으며,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포교부장 선업 스님과 청년대학생전법단 지도법사 스님 및 대학생 12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학생전법단 합동수계법회는 그동안 총 다섯 차례 진행됐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과 대면을 함께 진행해오다 3년 만에 전면 대면으로 진행됐다.

청년대학생전법단장 무각 스님은 "법의 인연을 맺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수계법회를 하게 된 것은 지중한 인연"이라며 "계를 받아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정진해가자"고 당부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도 "요즘 시대 불교계에 젊은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오늘 모인 여러분에게 감사를 전한다. 여러분이 불교계의 기둥"이라며 "주변의 친구들에게 불교를 알리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 여러분이 있기에 아직 불교의 미래가 밝다"고 말했다.

이날 합동수계법회에는 전계사 범해 스님, 인례사 효석 스님(청년대학생전법단 사무국장), 집전 청일 스님(성균관대 지도법사) 하에 수계에 대한 의미 설명 등도 함께 진행됐다.

전계사로 나선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계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기본이 되며, 부처님이 되는 근본"이라며 "부처님의 다섯 가지 계법은 남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하는 가르침이다. 오계는 불자들이 믿고 의지할 생활지침이며, 바른 행동의 덕목"이라고 설했다.

장궤합장한 청년불자들은 참회진언과 함께 연비를 받았다. 지도법사 스님들이 향불로 연비를 하는 동안 합장한 채로 계속해서 진언을 외웠다. 수계 후에는 청년대학생전법단 지도법사 스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석주 대불련 60년차 회장은 "오늘 수계법회를 통해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청년불자들이 되길 바란다"며 "오는 8월 3년 만에 대면 캠프인 영부디스트 캠프를 통도사에서 진행한다. 전국의 법우들과 만나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진흥원, 일묵 스님 초청 6월 열린강좌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은 6월 21일 오후 7시 마포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6월 화요 열린 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화, 어떻게 버릴 것인가'를 주제로 제따와나선원장 일묵 스님이 강사로 나선다. 강좌 대상 도서는 일묵 스님의 저서 〈화, 이해하면 사라진다〉이다. 이날 강좌에서 일묵 스님은 일상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화'의 속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화내는 것에서 벗어나 지혜와 행복의 길로 가는 방법을 전한다. 강좌는 영상촬영후 BBS TV와 유튜브 '헬로붓다 TV'에도 업로드될 예정이다.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의 제자 원택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일묵 스님은 범어사 강원을 졸업했고 봉암사, 미얀마 파욱국제명상센터, 영국 아마라와띠, 프랑스 플럼빌리지 등 국내외 수행처에서 수행했다.

현재 제따와나선원장으로 있다. 저서로 〈이해하고 내려놓기〉, 〈일묵 스님이 들려주는 초기 불교 윤회 이야기〉, 〈사성제〉 등이 있다. 문의 (02)719-2606 신성민 기자

인등생산 전문기업

금륜사

30여년 축적된 원목제품 생산

노하우와 장인정신으로 유수의 사찰과
맞춤제작 인연을 맺어 오고 있습니다.

※ 무상 A/S 2년 보장합니다.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번길 48
전화 010-3781-2460 / 031-534-0048
팩스 031-532-2468

